



**이제**는 화해를 향한 무우드를 잡아야 할 때가 된 거라고 옥주는 생각했다.

생각이 정해진 이상 뭔가 내보여야 하게 생겼는데 어째 자꾸 멧적은 정이 드는 것이 마음만 조마조마해졌다.

생각해 보면 화가 잔뜩 나서 무단으로 장시간 밤외출을 했던 것은 옥주 자신이었으며 그건 결혼생활 6년에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기도 했다.

옥주는 연신 시계를 보았다. 명우가 퇴근하고 곧장 집으로 오고 있지 않다는 것은 확실해졌다.

잘 됐지 뭐. 어디 가서 술이라도 한잔 걸치고 들어오는 편이 오히려 부드러울테니까. 아니 고주망태가 되어서 들어오면 더 좋겠네. 그렇다면 자기 쪽에도 하자가 생긴 셈이니까 내가 유리해지는 거지. 찻! 내가 뭐 대단한 잘못이라도 저질렀다는 거야. 뭐야. 어느 여자는 나같은 상황이었어 보라지. 당장 이혼하자고 덤뻏을 거다. 이혼. 그저 자나깨나 엄마엄마엄마. 그나저나 이 아파트는 난방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아이, 추워라.

옥주는 전기장판의 전선을 연결한 후 그 위에 누긋이 었드렸다. 대충 보고 던져두었던 저녁신문을 집어 사람찾는 광고까지 살살이 다 훑어보았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콩밭을 헤매고 있었으므로 신문의 활자들은 제각각 놀면서 전혀 연결되어 주지 않았다. 오늘은 저녁반찬도 신경을 써서 마련해 두었던만 전화조차 할 줄 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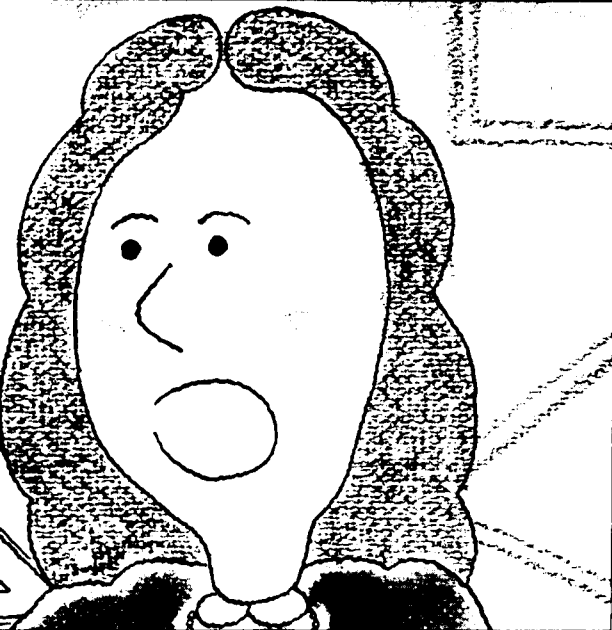
옥주는 슬며시 잠이 들고 말았다. 인기척이 나서 화들짝 눈을 떴을 때 명우는 이미 옷을 갈아입는 중이었는데 술기운은 요만큼도 없는 말짱한 얼굴이었다. 야근을 한 모양이었다.

「도대체가, 윈!」  
명우는 혼잣소리처럼 투덜대며 거실로 나갔지만 옥주의 귀엔 그 소리가 와랑와랑 울렸다. 지난 날에도 더러 이런 상황은 있었다. 그때의



박진숙

- 47년 경북 김천 출생
- 71년 경희대 국문과졸업
- 81년 여성동아 장편공모에 「지다워」로 당선
- 「바람그림자」「울지않는아이」「껍질」「필드」등의 작품이 있음.



명우는 어떡했던가. 가벼운 입맞춤은 신혼 때의 일로 치더라도, 발바닥을 간지르거나 코를 살짝 킁겨 옥주를 깨우지 않았던가.

「자기 닳은 건 왜 생각 못해!」

저녁은 어쨌느냐고 물어보고 싶었었는데 입밖으로 쏟아져 나온 말은 전혀 엉뚱하면서도 통명스런 것이 되고 말았다.

「무슨 재미로 집엔 일찍 들어와!」

신분을 구겨대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거실에서도 기진 부소리가 날아왔다.

「그래요? 그렇담 아예 들어오질 말 것이지 빗하러 들어온 거유. 수유리로 갈 걸 그랬잖아. 거긴 잠지도 잇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 데니까. 봉매에도 못 낫으셔서 어쩔, 출장을 가면서도 사진을 쬐고 다니시더군.」

홍분한 탓에 옥주의 발은 속사포가 되었고 심장은 한량한량 뛰었다. 뒤엎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옥주는 자신이 자신의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이미 후회를 하고 있었다. 끝까지 모른 척 해두자고 스스로 다짐했건만 어째서 이렇게 양재기의 물을 잊지르고 말았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 후련한 것도 없지 않았다.

자, 이것으로 당신이 마마보이란 건 입증된 셈이야. 이제 알았겠지? 내가 화를 낸 진짜 이유를.

명우가 바람을 일으키며 안방으로 뛰어들었다.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지만, 손찌검을 당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으므로 옥주는 잔뜩 몸을

조그맣게 했다. 그러나 명우는 옥주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옷걸이에 걸여있던 바바리코트를 휘 나꿔채더니 곰장 몸을 눌렀다. 출입문이 여닫기는 요란한 소리를 옥주는 잠자코 들었다.

옥주의 심장은 계속 요란하게 뛰고 있었지만 집안은 졸지에 적막강산으로 변해버렸다. 화해는 커녕 시한폭탄의 심지에다 불을 당기고 만 꼴이었다.

그러나...그 사진은...너무 했어...

옥주의 눈에 파란 날이 섰다.

불과 이틀 전의 일이었다. 그날 명우는 인천으로 출장을 가게 되어 있었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곧장 인천으로 가는 일이어서 아침시간은 다른 날보다 오히려 여유가 있었다. 명우는 욕실에서 면도를 하는 중이었고 옥주는 명우가 갈아입고 나갈 속옷가지를 챙기고 있을 때였다. 초인종이 울려 나가봤더니 우유배달 아저씨가 수금을 하러 왔노라며 웃어보였다. 옥주에겐 마침 만원짜리 밖에 없었고 아저씨는 잔돈 준비를 해오지 않았었다. 다음에 들려 달라고 말하고 있던 참인데 명우가 욕실에서 비축이 몸을 내밀며 자기에게 잔돈이 있다는 것이었다.

「내 바바리코트, 안주머니에 지갑이 있어.」

문제의 사진은 바로 그 지갑 속에 들어 있었다. 코스모스 꽃길을 배경으로하여 은은히 웃고 서 있는 여자는 바로 젊은 날의 시어머니였다. 사진 속의 시어머니는 옥주 자신보다도 확실해 더 예쁘고, 더 젊었다. 우유값을 어떻게 지불했는지 영 기억이 안 날만큼 그 순간의 옥주는 얼이 빠져 있었다. 명우가 효자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고 또 아들이 그 어머니의 사진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죄될 바도 없는 터겠지만 옥주가 느낀 야릇한 배신감은 실로 감당하기 벅찬 분량이었다. 옥주는 그 지갑속에 자신의 사진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노여워할 겨를이 없었다. 하나 뿐인 딸아이의 사진이 그 속에 있었다더라면 얼마나 흐뭇했으랴. 아니, 그저 무슨 증명서 따위나 돈만 들어 있었다더라면 마음은 얼마나 명경지수 같았으랴.

옥주가 현장에서 적나라한 자기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자존심이라는 단어와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명우는 일박이일의 짧은 출장에서 피곤한 기색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아참, 나 수유리 맹겨서 오는 길이야. 움 엄마 전북 좋아하시는 거 당신도 알지? 굶들꿈틀 살아

있는 놈들을 보니 엄마 생각이 나더라구.»

「그래요? 그럼 내 뭇머리 뭘 사온거유?»

옥주는 명우를 말끔히 바라보았다.

「당신 뭘? 하, 참나. 내가 뭐 어디

해외출장이라도 갔다 온 줄 아는 거야 뭐야. 인천 갔다 왔어, 인천. 아, 수유리에서 우리 아람이하고 놀다 왔지. 데리고 오려다가 엄마 적적해 하실까봐 며칠 더 두기로 했어.»

「난 안 적적해요?»

「당신이야 싫는데 뭘 그래.»

「어머님이 어디가 어떻게 적적하신 거예요?

큰형님 집에서 자랄 게시잖아요. 제자들도 찾아올 거구.»

「제자들이 찾아온다구? 그거야 연말연시에 잠깐 있는 일이지. 또 말이 났으니 말이지 엄마가 큰집에서 지내시는 거 난 영 신경에 걸려. 조카녀석들은 머리통 굵어졌다고 제방에서 들 나오지 않지, 형님은 출창 오밤중이지. 그렇다고 형수가 곱살맛길 하나…」

「형수 불평 하지 말아요. 상냥한 구석은 없어도 번덕없고 속 깊은 분이세요.»

애기를 더 들어주다간 당장 이리로 모셔오자고 할 판이었다. 옥주는 서둘러 저녁상을 차렸다.

「우리 엄마는 계속 직장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음식 솜씨 하난 알아 드려야 한다구. 시래기 한 가지로도 열 두가지 반찬을 만들어 내시는데 그게 또 제각각 맛이 유별났다구.»

반찬이 입에 맞지 않을 때 명우가 늘 해온 말이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또 엄마 타령하네, 하는 정도로 넘겨 버렸겠지만 이제 옥주는 그것이 힘들어지고 말았다. 이런 느낌은 아까 명우가 수유리 전복타령을 시작할 때부터 자꾸자꾸 북돋으로 넘어왔지만 꺾꺾 눌러 참아낸 것이기도 했다.

식사를 끝낸 명우는 탁구중계가 한창인 텔레비전 앞에 앉았고 한술 뜨다가 수저를 놓고만 옥주는 실것이감이 쌓인 싱크대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는 것인가. 못 참겠다. 못 참겠어.

한 번 못 참겠다고 중얼거리고 났더니 이견 걸잡을 수 없는 회오리가 되어 옥주를 싸잡았다. 숨까지 턱턱 막히는것 같았다. 옥주는 입었던 옷에 반크리트 하나만을 덮쳐 입은 채 아파트를 나섰다. 텔레비전에 열중해 있던 명우는 어딘 가는 거냐고 물어오지도 않았다.

그래. 언제는 나를 챙겨 주었으니. 니 엄마나 실컷 챙겨라. 다신 집에 들어가나 보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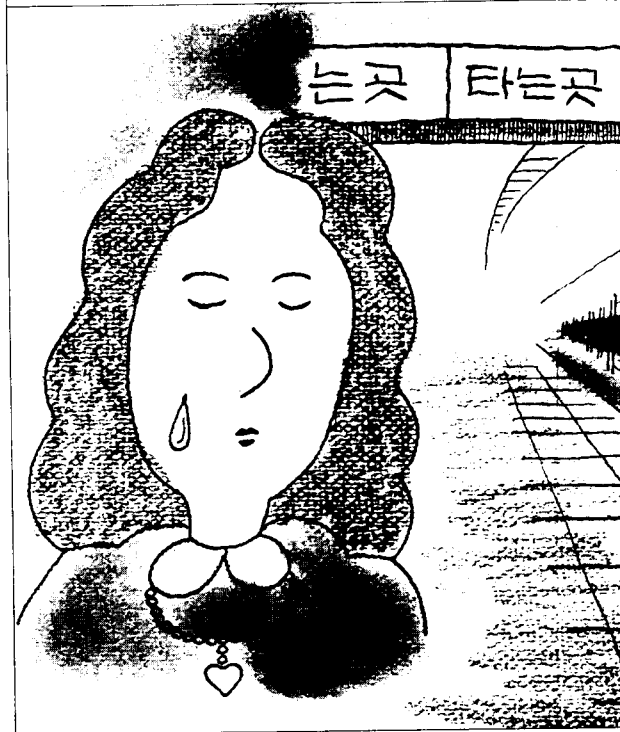
저녁과 밤이 맞물리고 있는 거리엔 꽃샘바람이 야멸차게 불고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하, 외로워라. 난 내가 외로운 줄도 모르고 살아온 바보천치다.

거리를 후적후적 쏘다녔다. 양품가게 앞에선 다투어 나온 봄옷들을 한참씩 바라보았다. 눈치 빠른 가게주인이 쇼윈도우 바깥까지 나와, 옥주를 유인해 매상을 올려볼까 했었으나 옥주의 표정을 살피고는 이내 포기하고 돌아서 버렸다.

옥주의 표정에 물욕의 흔적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았다. 옥주는 전철을 타게 되었다. 그것은 눈앞에 전철역이 나타났었기 때문이었고, 구과밭까지 표를 산 것은 그곳이 한 번도 바뀌타지 않고 곧장 쪽쪽 뻗어간 멀어 보이는 종집이었기 때문이었다. 구과밭은 초행이라 낯선 곳이었지만 사탐사는 것이 다 거기가 거긴 법이어서 굳이 낯설어 할 것도 없었다. 이제는 완연해진 밤, 아직은 별거벗은 채로인 앙상한 가로수를 친구하며 옥주는 무작정 걸어나갔다.

침에 들어가나 바라. 나도 한번 괜찮았었다구. 지금도 여전히 괜찮다구. 나 좋다는 남자가 어디 한 들어있는지 아니? 고놈의 수첩 때문이야. 왜



학교앞 다방에다 수첩은 빠뜨려서 아람아빠가 내게 접단할 구실을 주게 되었나 몰라. 하긴 아람아빠도 그땐 썩 근사해 보였는지. 그 속을 누가 알기나 했을라구. 나는 마마보이다, 하고 등쪽에다 씨불이고 다녔어야 말이지. 팔남매의 만며느리 노릇으로 피지도 못하고 시들어가신 친정엄마는 아람아빠가 막내라는 것 땀에 아주 좋아라 하셨어. 아, 엄마.

뺨을 적신 눈물을 꽃샘바람이 차갑게 말려내었다. 거리는 걸어도 걸어도 끝이 나질 않았고 옥주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다. 시장기. 옥주는 배가 고했다. 그건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자각이었으므로 곧 두리번거리 음식점을 찾게 했다.

내가 왜 굶어?

실령탕집 간판이 보여 그대로 들어갔다. 김치부우는 알맞게 익어 입에 맞았고 국물은 뜨거웠다. 옥주는 콧잔등에 솟은 땀을 닦아내고 코도 풀었다.

다시 밖거리로 나섰다. 아까까진 채 느낄 수 없었던 막막하던 기분이 뒤통수를 쳤다. 몇 시나 되었는지 궁금했지만 옥주에겐 시계가 없었고 마뜩한 행인도 안 보였다.

「실례합니다. 지어... 아까부터 혼자시던데...

시간을 좀 같이...」

땅에서 솟은 듯 앞을 막아선 사내.

그랬다. 실령탕집에서 혼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던 사람이었다. 씨름선수같은 건장한 체격에 나이가 가늠되지 않는 얼굴. 옥주는 냇다 뛰기 시작했다. 얼마나 겁이 났던지 실령탕을 먹을 때보다 더 심하게 땀을 흘렸다.

집으로 돌아왔을 땐 밤 열시가 넘어 있었고 명우는 잔뜩 불이 부어 있었다.

두 사람은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냉전은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다.

첫 / 자기가 밤중에 뛰쳐나간들 술집 밖에 더 갔을라구. 원하건대 나처럼 구파발에나 가라. 그래서 방향하다가, 추하게 늙은 과부한테서 데이트 신청이나 받아라. 하이구 고거 생각만 해도 뽀뽀네.

그러나 시간이 흐를 수록 옥주는 마음이 불안해졌다. 커피를 자꾸 마셨다.

정물인듯 잠잠하던 전화기가 부르륵 진저리를 치며 온 집안을 흔들어 놓았을 때 옥주의 불안은 불길로 바뀌어버렸다.

「아람에미냐? 나다. 아람아빠이 지금 막 나갔다. 아람이 데리구.」

흥, 기껏 거길 또 가셨었구만. 아예 거기서 살지 그러니.

「내일, 아람이랑 대공원 간다며?」

일지구, 대공원은 무슨.

「날은 더 추워진대요. 옷 단단히들 입고 나가렴. 다음 주에 날씨가 풀리거든 가라고 해도 아빤이 막무가내더라. 하마 도착할 때가 열추 돼가느구나.」

별일 없으시냐, 건강은 여전 하시냐, 묻는 게 상례였지만 옥주는 그러지 않았다. 대충 진화를 꿈으려는데 시어머니는 뭔가 미진한 듯한 눈치를 보이더니 말을 이었다

「에미야. 나 말이다. 책이 나오면 얘기하려 했었다만... 다음 달 노인문화란 책에 기사가 실리게 됐구나. 내 제자가 편집장일을 봐. 은퇴한 노인이 어떻게 지내나 보는 난이랑는데 옛날 사진도 여러장 필요하다더라. 그래서 니네집에 있는 내 사진을 갖고와 보라고 아빤한테 일렀었는데 자꾸 잊어버리더라. 오늘도 내가 챙겨주었다며? 그래 잘했다. 원, 지난 번엔 갖고 와서도 도로 들고 갔다니... 그럼 잘 자거라야.」

붉어진 귤볼을 옥주는 싸안았다. ■

